

정책브리핑

해수부

### FTA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명대·상어 등 7개 품목 선정

해양수산부는 2018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고등어·명대·민대구·상어·새조개·아귀·주꾸미 등 7개 품목을 최종 선정해 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지원대상 품목(안) 행정예고와 해수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과다.

피해보전직불금 제도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FTA로 농·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락해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세종=최신용기자

산업부

### 韓-인도네시아 에너지포럼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현지 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제10차 한-인도네시아 에너지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에서 우리측은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지원실장을 수석대표로 가스공사,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지질자원연구원, 서울대 등에서 30여 명이 참가했다.

인니측은 조코 시스완토(DJOKO SISWANTO) 에너지광물자원부 석유가스청장을 수석대표로 광물석탄청, 신재생에너지보존청, 전력청, 석유가스개발규제위, Pertamina(국영석유회사) 등 3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포럼에선 '전력과 신재생에너지', '상호협력강화', '가스개발 워킹그룹 결과' 등 3개 세션을 진행하며 양국간 에너지분야 정책공유와 협력의제 등을 발표 및 논의했다.

세종=최신용기자



국토부

### 내년 車 번호판 형식 바뀐다

내년 9월부터 자동차 번호판의 앞자리 숫자가 세 자리수로 바뀐다. 예컨대 현행 '52가3108' 형식에서 앞자리 1자리를 더한 '152가3108' 체계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말 소진이 예상되는 자동차 등록번호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앞자리 한자리가 추가된 '111가2222' 형식이다. 비사업용(자가용) 및 대여사업용(렌터카) 승용차 번호판 발급 때 적용된다. 기존 차량 소유자가 새 번호판으로 바꾸는 것도 허용된다.

이 체계를 적용할 경우 국가 전산시스템 업그레이드 등 공공부문에서만 40억 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될 전망이다.

세종=최신용기자

# 예비전력 14%... 올 여름 공장 세우는 일 없다

(1241만kW)

## 정부 전력수급 대책 확정

### 최대전력 수요 8830만kW 예상 공급능력 1억71만kW '안정수급' 에너지절약 문화 확산 캠페인도

정부는 올 여름 전력예비력이 1241만kW(예비율 14.1%) 수준으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9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력수급 대책기간을 운영해 폭염과 발전기사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심의·확정했다.

여름철 전력수급 대책을 보고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올 여름은 원전정지 감소 등의 공급능력 확대로 역대 하계수급 이래 최대의 공급여력 확보를 통한 안정적 전력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올 하계 최대전력 수요는 8월 2~3주에 8830만kW로 예상되고, 이 시점에서의 공급능력은 1억71만kW로써 예비력은 1241만kW 수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폭염, 대형발전소 불시정지, 송전선로 이상 등 만일의 사태에도 차질이 없도록 681만kW의 추가 예비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는 하계 전력수급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이달 9일부터 9월 14일까지를 '하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발전사와 함께 만일의 사태에도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수요감축요청(DR)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기업활동 뒷받침을 위해 예비력이

일정수준(1000만kW) 이하로 낮아지는 상황에서 전력수요 급증(8830만kW 초과)이 예상되는 경우에만 DR을 실시하고, DR 요청시에도 하루 전에 예고해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은 에어컨 등 복장 간소화, 에너지절약형 실내온도 준수(비전기식 냉방 26°C, 전기식 냉방 28°C), 불필요한 조명 소등, 승용차 요일제 등 기관별 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에너지절약 추진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 학교, 대중교통시설, 문화시설, 의료시설, 노인·아동시설 등은 자율적으로 온도 관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단체, 가전매장 등과 협력해 여름철 에너지절약 문화확산을 위한 국민참여형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연중 상시 실천할 수 있는 '스마트한 절전요령'을 전파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도 심의 후 확정됐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분야 불공정한 갑질관행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단계별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갑질 신고·지원 창구를 확대하고 갑질 전담직원을 배치해 내부 감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제재도 강화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갑질 행위자를 단호히 처벌하고,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엄정히 묻도록 할 계획이다.

갑질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는 ▲법률·심리상담 ▲소송지원 ▲소송입증부담 완화 등의 지원을 확대하고, 신원보호, 불이익 처분 금지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metrosoul.co.kr

# 자녀 많을수록 금리 우대... 출산·육아 부담 낮춘다

## '문재인 흠' 본격시동

### 2자녀 이상 대출한도 2억→2.4억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프로 이용

정부가 출산·육아 부담을 낮추는 주거 지원대책을 내놨다.

자녀가 많을수록 대출 우대 금리를 얻어주고, 한부모 가정도 신혼부부 수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가 5일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은 자녀가 많을수록 기금대출 상품의 금리를 우대해줄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대출의 경우 2자녀 이상이면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2억 4000만원까지 늘어난다. 금리도 기본금리 1.70~2.75%에 자녀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1자녀는 0.2%포인트, 2자녀는 0.3%포인트, 3자녀는 0.5%포인트 우대받

### (디딤돌 대출 제도개선 안)

자료=국토교통부

구분	현행	개선
소득요건	기본 : 6천만원 생초 : 7천만원	기본: 6천만원 생초, 신혼, 2자녀 이상 : 7천만원
대출한도	2억	기본: 2억원 신혼 : 2.2억원, 2자녀 이상 : 2.4억원
기본금리	2.25~3.15%	
금리우대	1. 다자녀(3자녀이상) 0.5%p 2. 다문화, 장애인, 신혼 0.2%p 3. 생애최초 주택구입 0.2%p * 중복적용 불가, 우대후 최저 1.8% (1.80~2.65%)	1. 1자녀 0.2%p, 2자녀 0.3%p, 3자녀 이상 0.5%p 2. 신혼 0.2%p 3. 다문화, 장애인 0.2%p 4. 생애최초 주택구입 0.2%p * 1과 2간 중복적용 허용 및 최저금리 1.8% 하한 폐지(1.55~2.45%)

는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보증금한도, 대출 한도 완화를 적용한다. 기존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이다. 앞으로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한도가 늘어난다. 금리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까지 우대된다.

디딤돌 대출도 마찬가지다. 대출 한도가 기존 2억원에서 2자녀 이상은 4000만원 더 상향된다. 기본금리도 2.25~3.15%에서 1~3자녀 당 0.2~0.5%포인트 우대해 준다.

자녀 양육을 고려해 행복주택의 평형도 확대한다.

전용면적 36㎡의 비중을 50%, 44㎡의 비중을 35%로 조정한다. 2자녀 가구를

위해선 59㎡를 도입해 15% 공급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주거 안정성이 취약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 월평균 소득 205만원 이하일 경우 영구, 국민, 매입, 전세, 분양전환임대 등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앞으로 여기에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도 추가된다. 205만원~500만원 구간의 한부모 가족도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한부모 가족이 신혼부부 지원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엔 가점제 항목 중 '혼인 기간'을 '자녀 나이'로 대체한다. 자녀 나이가 만 2세 이하면 3점, 2~4세 이하는 2점, 4세 초과는 1점으로 적용된다.

이 밖에 버팀목대출의 금리는 1.30~1.90%,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1.75~2.35%까지 적용돼 신혼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세종=최신용 기자 csh9101@

## 공정위간부 불법재취업 정황 검찰, 현대車 본사 압수수색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 정황을 추가로 포착하고 5일 현대자동차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사업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차 외에도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업체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포함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

를 잡고,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옛세 뒤에는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 등지에서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당초 검찰은 공정위 간부 5~6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하지만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심사 기록을 넘겨받고 김모 운영지원과장 등 공정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범종기자 jcker@

## 8일부터 中 베이징서 韓 전통정원 특별展

오는 8일부터 9월 2일까지 중국 베이징 원림박물관에서 한국의 전통정원 특별 사진전(중국전시명: 한국풍경원림도편전)이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중국원림박물관, 주중한문화원은 공동으로 이번 사진전을 준비했다.

지난해 한중 수교 25주년 기념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전시다. 그동안 문화재청에서 기념물로 지정된 문화재 중에서 한국의 전통정원을 대상으로 공월, 왕릉, 민가, 별서(別墅, 자연에 귀의하여 전원이나 산속 깊숙한 곳에 따로 지은 집), 서원, 사찰, 누·정·대(누각, 정자, 대 등 사방을 관망할 수 있게 지면에서 높여 지은 공간), 신림(神林, 제사를 지내기



전보인다.

개막식이 열리는 오는 8일 중국원림박물관에서 양국 정원문화 공동연구, 공동전시회 개최, 전문인력 양성, 정원문화 홍보확산 등을 위한 삼자간 업무협약 체결식도 가질 예정이다. /오진희 기자 valere@

세종=최신용기자